

“물질로 먹고살기 어려워진지 오래”

[제주잠녀]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한경면 두모리

등록 : 2006년 11월 26일 (일) 15:24:12
최종수정 : 2006년 11월 26일 (일) 15:24:12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 전북 종패작업을 마친 두모 바닷가에 '불법 채취'를 경고하는 어촌계장 명의의 팻말이 을씨년스럽게 서있다.

△삶 의존했던 바다, 사람에게 의해 망가지다

“바다야 몇년전부터 가물었고, 그나마 해초나 물건이 나는 곳은 낚시꾼들이다 뭐다 해서 다 망가져 버려서…”

바다 마을 사람들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날카로운 바닷바람에 실려 을씨년스럽다.

80ha 규모의 어장을 가지고 있는 한경면 두모리의 잠녀는 38명. 이중 상시 작업을 하는 잠녀는 25명 안팎이다. 그나마 물건이 많이 나는 먼바다 협동어장까지 나가 물질을 하는 상군은 15명이다.

두모 바다도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7년전부터 천초가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계통출하도 못할 정도로 그 물량이 줄었다. 지난해 툷 생산량은 한림수협 관내 어촌계중 두번째 규모지만 갈수록 물량이 줄어드는데다 최근에는 엔화약화 등 수출 시장 변화로 수익이 나지 않아 바다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고 했다.

서상숙 두모어촌계 간사(45)는 “툷 작업은 계원 비계원 구분없이 참가할 정도의 큰 마을 작업이었다”며 “지금은 하루 4~5시간 작업해도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다 계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점 작업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800kg나 수확했지만 올해는 2800kg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질도 많이 떨어져 좋은 가격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204kg 수준이던 소라 수확량 역시 올해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생태계 변화로 먹이감이 줄어들면서 큰 소라를 찾기도 어려운데다 가격 역시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 처음 시도되는 해삼 종패 사업은 한가닥 희망이다. 올해 전복 5만미 외에 해삼 3만2000미를 툇밭에 뿌려놓고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일상이 됐다. 하지만 그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종패를 뿌린 곳이니 함부로 채취하면 안된다는 팻말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못 본체 하기 일쑤다. 공동 어장내 불법 수산물 채취 단속을 위한 조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낚시꾼에게는 전 어장이 개방돼 있는데다 특별자치도 통합 이후에는 제주시 땅인데 왜 채취하지 못하게 하냐는 항의까지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어촌계장에게 ‘명예감시원증’을 내주는 것으로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며 “채취하는 현장을 찍는 것은 물론 채취한 물건을 확인까지 해야 하는데 사법권도 없이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가장 큰 생채기를 입은 곳이 바로 ‘진여’다. 썰물 때 드러나는 진여는 인근 셋여와 함께 두모 바다에서는 가장 비옥한 곳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알이 굵은 소라나 오분작이 많이 나오고 물고기들도 많이 나타난다.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낚시꾼들이 모여들기 나름이고 낚시장화의 쇠징 등으로 해초 군락이 망가지고 ‘물건’들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서 간사는 “종패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지는 바다만큼 삶도 달라져

이곳 바다에도 전복과 오분작 등이 사라진 자리에 성게가 까맣게 동지를 틀었다. 성게 작업도 쉽지 않다. 작고 수가 너무 많아 상품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설레설레 손만 내젓는다.

송영자 잠수회장(59)은 “예전에는 마을 어장 경계를 침범했다고 ‘고발’하는 등 다툼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라며 “물질만으로는 먹고살기 어려워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잠수기선은 벌써 7~8년전 사라졌다. 툇 수수료 등으로 보전했던 이정세도 채우기 힘들어 지금은 개인 별로 돈을 거뒀어 어촌계 운영기금 등으로 쓰고 있다.

70세 이상은 이점세를 면제받고 있고 갈수록 가구수는 줄어들면서 이점세 부담도 상당해졌다.

두모리 어촌계 역시 어촌계 수익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제한을 받았던 어촌계 회관을 식당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해안도로도 나지 않아 수익 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물질 작업만 하는 것보다는 나올 것 이란 게 이 곳 주민들의 생각이다.

탈의장 등이 생기면서 두모 해안에는 불턱이 사라졌다. 잠녀들이 찾는 '할망당'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발길이 뜸하다고 했다. 선주들이 찾는 해신당은 포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해안선을 지키듯 자리 잡은 '두모연대' 위에서 내려다본 두모 바다는 잠녀들의 아쉬움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쉽게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지키려는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커지는 생채기들이 힘겹다는 말을 잠녀들의 입을 빌어 내뱉는 게 전부다. '언제까지'라는 기약을 할 수 없음이 아쉽기만 하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경면 금등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